

西厓 柳成龍의 政治思想

-政治運營과 人才登用을 中心으로-

金 吳 鍾*

• 目 次 •

I. 머리말	IV. 國策遂行上의 人才登用觀
II. 政治運營上의 公論觀	1. 人才登用 基準 2. 人才登用 方法
III. 權力執行上의 朋黨觀과 大臣觀	3. 實才 登用
1. 朋黨觀 2. 大臣觀	V. 맺음말

I. 머리말

西厓 柳成龍(1542~1607)은 16세기 말기에 壬辰倭亂이 발생하자, 영의정과 도제찰사 등 문무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국난을 打開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임진왜란은 조선왕조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지을 만큼 엄청난 전란으로서 당시 조선왕조가 이를 극복하였기에 민족의 정통성과 자주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명나라도 중화의 자존심을 지켜갔던 것이다.¹⁾ 이와같은 임란 극복에 있어서 서애의 기여는 새롭게 조명되어야함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전란 대응 과정에서 그가 추진한 일련의 시책 가운데는 뒷날 조선후기의 정치 사회 및 경제 변동의 계기를 마련한 것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본고는 서애의 그러한 정책추진의 배경이 되는 사상 가운데 그의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의 방대한 정치사상을 두루 해명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주로 서애의 정치 운영상의 공론관과 봉당 및 대신관 그리고 위기극복을 위한 인재등용관에 한정하여 밝혀보기로 하겠다. 먼저 정치 운영상에 있어서 공론과 봉당 등에 대한 서애의 견해 형성배경은 15세기 후반 훈구파의 권귀화에 따른 정치적 모순의 격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재등용에 대한 그의 견해가 이루어진 사정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으나 그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아마도 임진왜란이란 미증유의 국난을 당하여 이를 극복하는

* 안동대학교 인문대학 사회과 교수

1) 李泰鎮, 「16世紀末 國防態勢」, 『韓國軍制史 近世朝鮮前期篇』, 1968

과정에서 성립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여하튼 이렇게 형성된 서애의 정치사상은 당시 정치권에서 어느 특정 정파의 독주를 막아 여론을 중시하는 풍토의 조성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그의 인재등용관은 임진왜란을 극복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음을 해명하여 보고자 한다.

II. 政治運營上의 公論觀

서애는 정치의 근본을 禮와 樂에 두고 이를 중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禮를 통한 질서유지와 이러한 질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調和를 강조하였는데, 이와 같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군왕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공평하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禮樂을 위주로 한 정치를 하자면 公論에 따라 어진 인재를 등용하여야 하는데, 公論이란 大衆이 토의한 공정한 논의로서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서애의 공론관은 16세기 중반 이후 士林의 공론관을 대변하고 있다.²⁾ 그는 선조에게 공론을 존중하여 조정의 기강을 바로 잡도록 여러 차례 상소하는 한편 벼슬 길의 맑고 흐림은 公道의 밝고 어두움에서 연유되므로 鈐衡을 바르게 하고 청탁을 막아 공론을 실행하고자 역설하였다.³⁾ 즉 공론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임명하고, 친척이나 勢道에 의한 청탁인사를 배격하여 인사 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벼슬 길이 맑지 않으면, 사람이나 일반 백성들의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서애는 공론이 국가의 綱綱을 세우는 원천이므로 비록 士人이라 하더라도 공론이 물러나야 된다고 하면 사직해야 한다는 것이다.⁴⁾ 그는 공론을 어긴다면 이것은 바로 죄를 짓는 것이며 나라와 조정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국왕은 공론을 듣기 위하여 신하들과 자주 한자리에 앉아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고 보았다.⁵⁾ 이와 같은 생각을 지닌 그였으므로 임진왜란 때 비록 영의정으로 활동하였지만 탄핵을 받게 되자 이에 맞서 대결하지 않고, 공론이 형성되는 곳을 지적하면서 사직 상소를 바로 올렸다. 그는 士人이 공론을 버리고 公堂에서 업무를 처리한다면 權奸이 아니더라도 바로 권간이 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공론을 무시하는 대신은 대신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였다.⁶⁾ 이러한 그의 공론관은 정치적으로 비교적 불편부당한 입장을 취하게 하는데 근본이 되었다.

2) 南智大, 「朝鮮 成宗代의 臺諫官論」, 『韓國史論』12, 1985

3) 『西厓集』 劄子, 無水劄子, 40세

4) 위의 책, 劄子, 辭職劄子, 戊戌 9月 宣祖 31年

5) 위의 책, 위의 조목

6) 위의 책, 年譜, 宣祖 31年 10月 辭職劄子, 57세.

공론은 대체로 많은 논의에 의하여 형성되고 있으니 이를테면 자신과 가까운 同學이나 친우들이 모여 時事를 논하거나 是非를 분별함에서 흔히 시작된다. 이러한 논의가 국가 이익에 적합한지는 국왕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지만 다수의 사람이 공론으로 여길때는 국왕도 여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공론은 또 한편으로 여론이라고도 하였으니 여러 사람들이 논의한 것은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면 여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서애가 여론을 평소 중시하고 있었음을 다음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겠다.

「지난번 함경도 관찰사로 재수되었을 때는 부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부임한다고 하면 멀고 어려운 곳은 사양하고 가깝고 쉬운 곳은 택한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⁷⁾

라고 하였다. 이 글은 그가 42세 때 국왕이 경상도 관찰사로 제수하고자 하므로 아뢴 내용인데 그 이전 함경도 감사로 임명하고자 할 때 거부한 사실을 환기하면서 일반 여론을 의식하여 정중히 사양하고 있는 것이다.

공론은 관서에 따라서 수합하는 내용이 서로 달랐다. 이를테면 예의에 관한 공론은 예조에서 수합하여 결정하였으며 기타 다른 관서도 마찬가지였다.⁸⁾ 재상은 이렇게 수렴된 공론을 총괄하여 국왕에게 결재 받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었다. 조정에서 이루어진 공론은 이를 廷議라 하는데 관원들이 모여서 사건이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이러한 절차에 어긋나는 것은 독단으로 여겼다.⁹⁾ 서애는 이와 같이 공론을 존중하여 대체로 거기에 따르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를 살펴 보기로 하자. 그가 59세에 이르자 퇴계 선생의 문집을 새로 각판하게 되었는데 이 때 선비들 사이의 중론이 年譜는 꼭 서애의 손으로 만들어야 후세까지 전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⁰⁾ 그리하여 많은 선비들이 몰려와서 이구동성으로 요청하자 그는 공론에 따르기로 하고 그들과 함께 초고를 찬정하여 연보를 완성하게 되었다.

서애의 공론관은 정치에서 공도를 실천하려는 성리학자들의 주장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¹¹⁾ 이러한 공론의 형성과정은 다양하였으며, 공론의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분간하여 선택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정치형태는 비교적

7) 위의 책, 年譜, 42세 10월.

8) 위의 책, 年譜 45세

9) 위의 책, 年譜, 58세.

10) 위의 책, 年譜, 59세.

11) 李泰鎮, 「조선시대의 정치적 갈등과 그 해결」, 『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汎潮社, 1985.

言路가 개방되어 상소로서 大臣과 논박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공론이 형성되기도 하였으며, 동의하는 세력이 많을 때는 그들이 정치적으로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이 잘 다스려진다면 옳고 그른 것과 다르고 같은 것이 모두 공정한 마음에서 나와 나라를 위하는 일에 私心이 섞이지 않는다. 따라서 천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회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밝힐 수 있으며, 그 뒤에 취사 선택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옳다고 찬동하는 것이 반드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만이 아니며 그르다고 하는 것도 꼭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자기와 異見을 가졌다 하더라도 동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동의하여 국가를 위하는 일에 정성을 다할 수 있는 公論을 형성하자는 것이다.¹²⁾

서애의 공론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한다면 사람 사이에는 시비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하여 배척해서는 안되며, 또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의견이라고 무조건 찬성해서도 곤란하다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바로 사악한 의론을 만들어 조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간사한 당파를 만들게 된다. 그러므로 당파는 국가의 이익에 합치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동시에 시비를 명확히 하는 군자들의 모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공론은 유지될 수 있으며 국가의 태평도 가능하게 된다고 보았다.

Ⅲ. 權力執行上의 朋黨觀과 大臣觀

조선 宣祖代의 정치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는 그간 학계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왔다.¹³⁾ 특히 이 시기에 士林이라는 새로운 정치집단이 형성되어 정국을 주도하게 되자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시기에 정치계에 진출하여 크게 활약한 서애의 봉당관과 대신관을 차례로 고찰함으로써 그의 정치사상의 일단을 파악하고자 한다.

1. 朋黨觀

선조 초기에 정치운영의 주도권은 의정부로 대표되는 大臣에게 있었다. 그들은 당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혼란한 사회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士林을 등용하기 시작하였다. 명종 말기 이전은 훈구세력들이 사람에게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중앙정

12) 柳成龍, 『雲巖雜錄』, 朋黨.

13) 정신문화연구원, 『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1991

李成茂, 『朝鮮後期 黨爭研究의 方向』, 1992.

계로 진출하는 것을 억제하였으나 윤원형 일파가 몰락한 이후 사람들은 대거 중앙정계로 진출하게 되었다. 이들은 경제적인 학문 뿐만 아니라 修己의 성리학을 연구하여 실제와 이론을 겸비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公道政治를 추구하게 되자 정국은 공론은 형성하는 각 사림집단에 따라 士論이 다양하게 표출되었다. 그러므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학연, 지연, 혈연에 따라 朋黨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조선 전기는 공신으로 지칭되는 대신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었으므로 관인들은 대부분 이들의 세력범위를 벗어나서는 관료로서 성장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선조 초기에 이르면 이와는 다른 양상이 빚어졌다. 대신이외에 외척인 심의겸 일파가 독자적으로 그들과 대립하면서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다. 사람은 더 이상 화를 입지 않으면서 점차 중앙관료화 하였으며 당시 세력가인 대신 및 외척들과 같이 일정한 세력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 뒤 대신을 지지하는 세력은 동인으로, 외척을 지지하는 세력은 서인들과 더불어 정치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였다. 그런데 이때의 외척은 선조의 외척이 아니라 명종왕후 심씨의 외척으로 강대한 세력은 아니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사람이 집권한 선조 중기에 이르러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뒷날 朋黨의 대립으로 불리워지는 집단들이 형성되고 있었다.

서애는 선조 초기에는 郎官으로, 중기 이후에는 士臣으로 활약하였다. 그의 厓歷과정에는 출사와 사퇴가 반복되었는데 이는 정치적 변동이 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시기에 대하여서는 선행된 연구 업적이 많이 있으나¹⁴⁾ 당시를 주도했던 서애의 활동을 통하여 선조때의 정치운영 상황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서애는 때때로 율곡과 대립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치에 어긋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¹⁵⁾ 따라서 의견이 다르다고 배척하지 않았으며 같은 동지로서 뭉쳐 공공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즉 그는 율곡을 동류의 士林으로 인식하면서 東·西의 대립은 동지내의 의견 차이점으로 이를 하나로 통일하고자 힘썼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의 상충을 동지들과 함께 조정하려고 하였으나, 양쪽이 각각 봉당으로 뭉쳐 상대방을 심하게 공격하였으므로 자당 근친을 이유로 그냥 머무르고 말았다.¹⁶⁾

서애의 朋黨觀은 우선 인간을 군자와 소인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엿볼 수 있으니 다음의 南致利에게 답한 글을 통하여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대개 군자가 착한 일을 하고 소인이 악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동지들과 서로 가부를 논하여 합니다. 그런데 소인은 고집된 마음과 사적인 꾀로서 남을 시기하면서 누르려고 하고 군자는 마음쓰는 것과 일을 처리하는 것이 공정하여 남을 시기하

14) 李泰鎮 『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1985.

鄭萬祚, 「16세기 士林派 官僚의 朋黨論」, 1989. 등이 있다

15) 『宣祖實錄』卷13, 12년 6월 丁午 및 「西厓集」書, 谷金肅夫, 宣祖 12년.

16) 「西厓 柳成龍 行狀」, 『西厓研究』 2

거나 이기려는 마음이 없고 동지들과 의논하여 착한 일이라면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하여 군자는 여러 사람이 좋아하는 착한 일을 모아서 하는 한편 충실하고 유익한 일을 널리 시행하므로 행동에 잘못을 범하지 않으며 남들이 그를 위하여 충고하기를 즐깁니다.¹⁷⁾

이렇게 군자와 소인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군자가 동지들과 논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는 동지들 간의 의견 대립을 인정하였으나, 소인들의 모임인 黨의 부식을 배척하는 동시에 당에 대한 인식도 다분히 부정적이었다.¹⁸⁾ 이같은 군자와 소인의 이해는 선조 초기까지의 붕당에 대한 이해와는 전혀 달랐다. 즉 선조 초기까지는 붕당이 權貴들의 邪黨으로 인식되어 최악시 되었으며, 처벌의 대상으로서 흔히 붕당을 거론하였다.

서애가 정국을 주도하였을 때는 乙丑年의 冤獄을 씻어 주었는데 그 이유는 일파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빙자하여 자파가 적대시 하던 인사들을 連坐란 명목으로 제거하려 했기 때문이다. 즉 의견이 다르다고 적대시하는 소인배에 의하여 억울하게 뒤집어 쓴 누명을 벗도록 하였다.¹⁹⁾ 이러한 그의 태도는 붕당에 대한 인식에서 찾을 수 있겠다. 의견이 다르다고해서 적대시하는 태도는 소인의 행동이므로, 부당하게 연좌된 자들을 신원하여 주었던 것이다.

서애의 朋黨觀은 상소문이나 왕조실록 등에서 보다는 『雲巖雜錄』 붕당조에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실려 있는 것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기 하겠다.

먼저 그는 당파 형성기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인식하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명종 말년에 이르러 권세부리던 간신들이 제거되니 정치를 새롭게 하고자 하였다. 이에 山林에 숨어 있던 선비들을 불러들여 조정에 벼슬하는 자가 많게되니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태평성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등용된 사람들은 언행이 맞지 않은 자가 많았다…… 그래서 公道를 저버리고 黨派를 위하여 죽는 폐습이 점차로 형성되고…… 서로 부추기고 추천하여 黨이 성한 자는 중요한 지위에 오르고 형세가 외로운 자는 낮은 벼슬에 억눌려 있게 되었다.²⁰⁾

이 내용은 선조 초기에 黨을 부식하여 공론을 저버리는 현상을 지적한 것으로

17) 『西厓集』 書, 與南義仲(致利) 別錄

18) 위의 책, 箚子, 辭職箚子, 戊戌 9月 선조 31년

19) 위의 책, 箚子, 청신설기축원양계, 선조 28년조에 '원통하게 누명을 쓴 자가 이를 벗게 될 것이니 이를 가리켜 天討이라 하겠으며…… 李黃鍾 같은 자들도 인품의 고하와 죄죄의 선후는 있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20) 『雲巖雜錄』 붕당. 이 저술은 서애가 영의정에서 물러난 뒤 쓴 듯하며 내용도 그의 문집에는 없고 『大東野乘』 속에 들어 있다

노당의 혼신과 소당인 심의겸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갈등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의견의 대립으로 禍는 생기지 않았으나 李浚慶의 사후에 조정은 그를 두둔하는 측과 공격하는 측으로 나뉘어 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후에 당이 나뉘어 피차가 서로 공격함으로써 승부가 번갈아 갈리더니 기축년 정여립 모반사건에 이르러 폐단이 심해졌다고 보았다.²¹⁾ 그는 어느 특정한 부류들이 권력을 독점하여 함부로 휘두르는 것도 매우 싫어하였으나 조정의 신하들이 당파를 만들어 권력을 너무 분산시켜 버리는 것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²²⁾ 즉 權臣은 시비를 가리지 않고 오로지 자기 뜻대로 하면서 권력을 專斷하므로 이러한 정국 운영은 공론에 의한 올바른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배척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권력의 지나친 분산은 의견이 분분하게 되어 하나의 모양을 이룰 수 없다고 하며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는 봉당정치에서 공론의 규합을 강조하였는데 그것이 되자면 시비를 가리는 일이 우선적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천하의 사리는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일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시비를 가린 뒤에야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밝힐 수가 있고 好惡을 밝힌 뒤라야 취할 것과 버릴 것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²³⁾

라고 하였다. 서애는 이와 같이 봉당이 제 구실을 하려면 무엇보다 공론에 의하여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 다음에 그릇된 것을 미워하고 옳은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며 제일 마지막으로 취사선택하여 시행하는 것을 이상적인 정치운영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봉당이 나누어져서 간사하고 사사로움을 품어 벼슬을 구하거나 이득을 얻고자하는 사람이 많았다. 당시 官人들 중에는 그들이 비록 사람출신이라 하더라도 권력과 이득에 밀접한 관직에 있었으므로 그러한 이상을 흐리게 하는 자가 많았다.

서애는 이렇게 현실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자를 막는 방법은 오직 국왕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즉 왕이 올바른 도리를 확립하여 미워하거나 싫어함이 없이 무편무당하게 정치를 해야 하며 그러자면 왕은 格物致知하고 誠意正心하여 왕도를 더욱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²⁴⁾ 이러한 상황 아래서 봉당을 바르게 형성하여 정치가 제대로 운영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서애의 봉당관은 봉당사이에 비록 畛畛을 가졌다 하더라도 공정한 마음에서 공

21) 위의 책, 같은 조목

22) 위의 책, 같은 조목

23) 위의 책, 같은 조목

24) 『雲巖雜錄』, 朋黨條.

론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是非는 올바른 마음에서 나와야 공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심이 섞여서는 곤란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옳다고 생각하여 공론으로 채택하는 것이지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따라서 동의를 해서 공론을 형성하는 것은 아부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붕당의 폐단이 공론을 형성할 때 시비를 가리기 보다는 먼저 邪黨을 지어 당이 다르면 무조건 반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²⁵⁾ 이러한 생각은 군자와 소인을 엄격히 구분하여 소인을 배척하는 선조 초기의 대립에서, 사람이 주도적으로 집권하게 되자 사람간에 서로 용납하자는 뜻으로 이해된다. 즉 士林이 현실적으로는 東西로 나누어져 있지만, 공론이 형성되도록 시비를 가려야 하며 당파가 다르다고 공격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서애는 붕당 문제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주체성을 보다 더 확립하려고 노력하였다. 그것은 明나라 사신이 붕당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자 그는 이것을 內治문제이므로 우리의 왕에게 대립할 일이지 사신에게 대답할 일은 아니라면서 응답하지 않았음에서²⁶⁾ 충분히 알 수 있겠다.

서애의 붕당관을 요약하자면 각 붕당이 너무 자파의 이익에만 치중하지 말고 가급적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면서 권력을 배분하자는 것이며, 아울러 공론으로 정국을 주도하여 더 이상의 당파 분열은 막아야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2. 大臣觀

서애는 국가의 정치권력이 지나치게 분산되는 것을 싫어하여 어느 정도 권력이 통합되기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大臣에게 권력을 집중시키자는 뜻은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선조 초기 이래로 대신들의 권력은 公論에 의하여 약화되는 추세에 놓여 있었다. 당시의 공론은 대체로 권간의 천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신들의 권력을 제한하고 있는 낭관들의 역할을 증대시키자는 쪽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그러나 선조시기의 정치체제는 의정부 중심의 형태였으며 왕을 중심으로 3의정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大臣은 宰臣과 같은 뜻으로 중앙 관아의 정승 판서와 같이 국왕을 보좌하면서 국정을 다스리는 고관들의 총칭이지만, 이때의 대신은 의정부의 三政丞만을 특히 대신이라고 높이 칭하고 있었다. 의정부는 조선 초기에 설치되어 경국대전에 성문화되었으며 조선왕조의 최고 국정결기관이었다. 왕권의 변화에 따라 의정부의 권한은 확대되거나 축소되기도 했지만 대체로 최고의 국정통치기관으로 존재하였다. 그리고 의정부의 책임자인 大臣은 최고위 관직이었으므로 항상 국왕의 절대적

25) 위의 책, 같은 조목.

26) 『西厓集』雜著, 癸巳冬司天使事.

인 신임을 받아야만 임명될 수 있었다.²⁷⁾

서애는 49세인 선조 23년에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며 이후 은퇴할 때까지 대신의 지위에서 국정을 이끌어 나갔다. 그의 대신관은 대체로 이 시기의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국정 총괄자의 입장에서 수술했었으며, 임란 극복을 주도했기 때문인지 특히 국방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그리하여 대신이 해야 할 일 가운데 국가를 안정시키는 문제에 큰 비중을 두었으므로 우리나라 대신 중에서 가장 공이 두드러진 자는 육진을 개척하여 여진족을 물리친 金宗瑞라고 주장하였다.²⁸⁾

서애의 大臣觀은 특히 사직상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는 대신이야말로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과 대들보이므로 그 재질이 아주 좋아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관인 가운데 최고의 자리로서 모든 관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²⁹⁾ 즉 정치적인 경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신은 모든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책임 따르고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관리들과는 다르게 존경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 권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³⁰⁾

대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인재 선발에 있었으니 그것은 올바른 인재를 선택하여 적재적소에 임명하도록 하자는 것이다.³¹⁾ 대신은 또한 국가운명을 좌우하기도 하였다. 낭관과 판서들은 상소를 통하여 공론을 주로 형성하였지만 결정은 대신들이 하였다. 최종결정권은 물론 왕이 갖고 있었으나 대신은 신하로서 가장 높은 지위였으므로, 그는 임금과 재상을 생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로 인식하고 있었다.³²⁾ 대신의 인사권과 재정권이 점차적으로 언관과 낭관들에게 제한을 받았지만, 왕위에 관한 일이나 국가의 안위에 대한 중대한 문제는 항상 대신이 책임지고 있었다. 특히 임진왜란때는 정부의 명령이 일관될 수 있도록 대신들을 각도에 파견하여 지방을 통괄해서 다스리도록 하였다.

서애가 대신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는 임금을 중심으로 政體가 통일되도록 노력하였으며, 明나라 사신이 광해군에게 선위하도록 중용하였으나 불사이군의

27) 韓忠熙, 「朝鮮初期 議政府 研究(上)·(下)」, 『韓國史研究』 31·32호.

崔承熙, 「世宗朝의 王權과 國政運營體制」, 『韓國史研究』 87호

28) 「西厓集」書, 金左相建置六鎭疏後, 여기서 서애는 우리나라의 이름난 대신으로 공적이 뛰어난 자는 金宗瑞 뿐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29) 위의 책, 筭子, 辭職筭子 선조 29년 5월조에서 그는 “大臣의 직위는 못 사람이 다 우러러 보는 자리입니다. 위로는 성의를 다하고 공정을 펴 어려움과 위급함을 구하고 아래로는 의리와 엄치를 알아 비위를 없게 하여 모든 관원이 본받게 하고 사방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30) 위의 책, 筭子, 辭職啓 丙申 12月 및 辭職筭子 선조 31년 10月 2日.

31) 위의 책, 年譜 29세 및 47세.

32) 위의 책, 年譜 42세 10월.

신념으로 단호히 거절하여 왕위가 동요하지 않도록 했던 것이다.³³⁾

서애가 우의정으로 승진할 때 선조가 특명으로 이조판서를 겸하도록 함으로써 명목상의 대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사권까지 장악하여 정국을 주도할 수 있었다. 평소 그는 대신의 자리가 막중하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할 수 없으면 곧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대신이 퇴진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는 질병이 들어 맡은 책임을 감당할 수 없거나, 능력이 중책을 맡을 수 없을 때 그리고 재주가 부족할 때 등이다.³⁴⁾

서애는 대신이란 정령을 통일하고 국왕을 보좌하는 지위로 보았다. 선조때는 士論이 나뉘어져서 대신들이 삭탈관직되거나 참형을 당하는 등 수난기였지만 그는 대신으로서 때로는 이조판서까지 겸임하면서 봉당으로 인한 갈등을 완화시켜 나갔다. 즉 봉당으로 인하여야기되는 지나친 정령의 분산을 士臣을 통하여 하나로 통일시키고자 하였다.

IV. 國策遂行上의 人才登用觀

선조때는 조선의 집권층이 훈구계열에서 士林派계열로 바뀌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정치세력의 변화는 단순한 인물의 교체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성향까지 달라지게 하였으니, 성리학적 의식이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보급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士林이 훈신과 척신정치에서 벗어나 정치의 전면에 떠오름으로서 지금까지의 人才登用과는 다른 양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사람이 당시 집권하기 시작했으나 아직 인사제도는 문란하여 宮家의 엽관행위와 당파의 부작용은 계속되었으므로 기강은 무너져서 공정성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서애는 인재등용의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국가가 수립한 여러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합리적으로 등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국가의 부강은 정치를 잘함에 있고 정치의 선악은 人才의 得失에 있으니 인재의 적절한 선발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³⁵⁾

서애의 인재 등용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인재등용 기준과 인재등용 방법 그리고 實才의 登用 순으로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33) 위의 책, 雜著, 癸巳冬司天使事

34) 위의 책, 劄子, 辭職 劄子, 선조 27년 9월

35) 『西厓集』 劄子, 陳時務劄, 甲午 4月 및 「官制實錄」 卷13, 12年 3月 庚午.

1. 人才登用 基準

人事란 조직과 개인의 발전을 위하여 적재적소의 원칙아래 합당한 인재를 임명하는 것이니 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의 성쇠와 관계가 깊기 때문에 정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와 같은 인사에 대한 서애의 견해는 어떠한지 먼저 살펴본 다음 그의 인재등용 기준을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서애는 국가가 정책을 집행하여 나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人事라고 주장하면서 인사와 天數는 서로 上下로 통하여 모두 하나의 이치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즉 천수는 춥고 더운 것이요 인사는 털옷과 베옷으로 비유하면서, 춥고 더운 것은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으나, 털옷과 베옷을 갖추어 두면 춥고 더운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³⁶⁾ 그는 이와 같이 천수는 자연의 섭리이므로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서애의 생각은 단순히 守舊的인 자세만을 강조하지 않고 천수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여 나가려는 융통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겠다. 융통하게 수구만 하여 名分을 지키려는 것보다는 변화에 맞추어 實利를 찾고자 하였다.

다음에는 이와같은 인사관을 지니고 있는 그가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데 있어서 유의하고 있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서애는 인재등용 기준의 첫 번째 항목으로 德望을 꼽았다.³⁷⁾ 덕망이란 衆望을 말하는데 인격적으로 모가 나지않은 원만한 사람을 뜻하므로, 이러한 자는 부하를 잘 거느릴 수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덕이 없으면 부하나 조직을 제대로 거느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인재등용에 있어서 최종 결정자는 국왕이었으므로, 왕 자신이 修身을 우선 잘하여 덕망을 갖추어야 덕망을 가진 자를 알아보고 이들을 등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官人으로서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덕망이 부족하여 자기 휘하의 부하들을 잘 거느리지 못한다면 그 재능은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였다.³⁸⁾

다음에는 사람의 才質을 중요시 하였다. 재질은 바로 才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의 廣取人才啓에서도 먼저 거론하고 있다. 물론 당시가 왜군을 물리쳐야만 한다는 절박한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능이 요구되어 그리했겠지만 그는 다방면의 재능자를 거론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재능과 식견이 있어 將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와 재능이 있어서 무기를 잘 만들거나 화약을 만들 수 있는 자, 理財의 재능이 있어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들거나 무쇠를 주조하여 교역함

36) 위의 책, 雜著, 天數人事相參

37) 李俊, 「西厓柳成龍行狀」, 甲申年 8月

38) 위의 책, 丁未年條 및 「宣祖實錄」卷1, 즉위년 11월 戊辰條

으로써 재정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자와 같은 재능이 풍부한 자는 문벌이나 지위 기타 모든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서 이들을 과감히 등용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⁹⁾ 남보다 자기가 맡은 일을 우수하게 잘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자를 찾아내는 방법은 먼저 그에 관한 추천을 받아서 初職에 임명하여 오랫동안 일을 시켜보면 그 재능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뒤 考課를 엄정히 하여 재능이 있으면 승진시키고 없는 자는 도태시키면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功勞를 인재등용 기준으로 들고 있다. 비록 재능이 부족하더라도 맡은 바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여 일정하게 성취시킨 것을 말하는데 이는 책임감하고도 상통하는 것으로서 성실한 자세를 의미한다. 이런 사람도 등용하여 일을 맡겨야 한다고 보았다.⁴⁰⁾

서애의 이러한 인재등용 기준은 관인의 자질을 구분하여 능력과 품성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관인사회 전체의 효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생활은 안정되고 국가는 저절로 튼튼해 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선비들이 관인을 희망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 이를테면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자기의 학술을 시험해 보고자, 귀하게 되고자, 공명을 나타내고자, 도덕을 널리 시행하고자, 경륜을 펼쳐보고자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⁴¹⁾ 이렇게 바라는 것이 각각 다르지만 인재로 발탁되어 관인이 되었다면 먼저 백성들을 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인정과 체면에 이끌리고 자기 뜻에 흔들리어 욕심만을 채우게 되므로 이를 경계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서애의 인재등용 기준을 개관해 보았는데 이를 다시 간추린다면 그는 임란을 극복하고 어지러운 사회를 바로잡을 인재를 선발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그러므로 문벌과 지벌을 배제하여 현실적으로 재주가 있는 사람은 지위나 귀천을 불문하고 등용하려고 하였다. 그는 또 시대의 변화에 적용하고자 힘쓰는 한편 관인은 우선 백성의 이익과 안정을 항상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2. 人才登用 方法

조선시대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으로는 대체로 科擧와 門蔭 및 薦擧 등이 있었다. 과거는 문장과 경서를 통하여 선발하였으므로 문관사회에서 가장 중시하는 과정이었고, 문음은 문벌자제의 初入仕의 성격을 지니어 갔다. 천거는 이런 방법이 외에 재야 선비 가운데 어진 사람을 추천에 의하여 선발하는 것으로서 과거와 문음이 주로 문벌관료를 위한 제도적 성격이 강한데 비하여 이것은 그와 다른 성격

39) 서애의 재능을 우선시하는 사상은 양명학의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鄭寅普, 『陽明學演論』, 삼성문화문고 11, 1972.

40) 이준, 앞의 문헌.

41) 崔漢綺, 『仁政』 卷20, 用人門.

을 일부 지니고 있었다.

16세기 이래로 천거제도가 강조되는 이유는 고식적인 과거와 문음제도의 관료적인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었다. 서애가 국정을 주도했던 시기는 대부분 전란기였으므로 유능한 인재가 많이 필요하였으며 명분보다는 실리가 더욱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인재를 올바르게 등용하여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그는 천하에 인재가 없을 수가 없으므로 가능한 한 숨은 인재를 찾아야 한다고 보았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천거제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⁴²⁾

천거제도는 조선왕조 초기부터 과거제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고자 시행되고 있었으며 이는 현직관리의 승진이나 無職者의 初入仕에 큰 역할을 하였다. 당시 士林들은 과거를 통하지 않고 천거에 의하여 관료사회로 진출하고자 하였으나, 천거된 자가 淸要職에 임명되지 못하게 되자 이를 극복하고자 한 때 『賢良科』를 설치하여 사림계의 인물이 합격하도록 하였다.⁴³⁾ 그런데 선조초기에 이르면 권신들이 별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은 다시 중앙정계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었다.⁴⁴⁾

인재를 천거할 수 있는 자격은 여러 직책에 있었으나 실제로 인재를 論薦하여 각각 그에 합당한 직무를 맡기는 것은 군주와 재상이 주로 담당하였다. 특히 재상은 고위관직을 임명할 때 그들을 천거하거나 인물평을 담당하였으므로 사실상 인사권을 가지고 정부를 장악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서애는 인재를 등용할 때 그의 지위를 활용하여 유능한 사람을 선출하고자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었다. 즉 그는 인재 선발에 있어서 지연이나 학연 그리고 과거출신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한 상황에서 자유롭게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노력하였다.⁴⁵⁾

그러면 지금부터 이러한 생각을 지닌 그의 인재등용 방법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그는 인재란 천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발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믿었으며 그렇게 해야만 백성은 안정되고 국가는 보존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인사가 사사로운 정에 의하여 시행된다면 백성들의 공익을 외면하고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게 되므로 이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 政畧을 통일하여 기강을 확립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는 여러 곳에서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⁴⁶⁾

다음에는 인재를 일단 등용하면 한 직책에 오랫동안 있게 하여 그의 능력을 알

42) 『西厓集』, 雜著, 人才說.

43) 李秉焦, 「朝鮮前期 畿湖士林派研究」, 一潮閣, 1984.

44) 崔異敦, 「16세기 사림파의 천거제 강화운동」, 『韓國學報』 54, 1989, 봄.

45) 『宣祖實錄』 卷59, 28년 1월 癸卯 및 29년 2月 癸丑

46) 위의 책, 권74, 29년 4월 戊戌 《軍門啓錄》 乙未 10月 26日.

아 볼 수 있게 한 뒤에 상벌을 엄정하게 시행하도록 하였다. 잦은 인사교체는 인재의 평가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특히 목민관의 경우는 백성들에게 영송에 따른 폐단만 끼치게 된다고 보았다.⁴⁷⁾ 관인의 初仕職은 대체로 중요한 직책이 아니므로 久任시켜 그 사람의 능력을 시험하여 보고자 하였다. 그런 연후에 그 사람의 근무성적에 따라서 상벌을 엄정하게 시행하여 우수한 자는 보다 더 큰 직책에 임명하도록 하자는 것이다.⁴⁸⁾ 그는 인재등용에 있어서 천거제도에 따르기 쉬운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사람을 추천한 경우 천거한 사람도 처벌할 것을 강조하였다.⁴⁹⁾

이와같이 서애는 권세가의 청탁에 의한 부당한 천거를 막아 공정한 인재선발을 기하고자 하는 동시에, 잘못으로 파직된 자가 다시 관직에 임명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벌을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이다.⁵⁰⁾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처음에 거론한 공정한 인재선발과 상통하는 점도 없지 않지만 그는 특히 朋黨의 당파성에 의한 인재등용을 막고자 하였다. 서애는 인재를 등용할 때 같은 당을 서로 추천하여 당이 성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오르도록 그렇지 못한 자는 낮은 벼슬에 머무르는 폐단을 방지하고자 힘썼던 것이다.⁵¹⁾ 그런데 그가 집권하고 있던 시기는 南人을 정점으로 하되 西人과 北人도 共存하던 시기로 볼 수 있으니, 그것은 서애가 관인들의 인사를 가급적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한 결과일 것이다.⁵²⁾ 만약 그렇지 않고 자기 당의 인사만 등용하였다면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實才 登用

전통적인 신분제하에서 인재등용의 형상은 대체로 보아서 문벌들이 관직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한미한 가문 출신자는 과거에 급제하였다 하더라도 대부분 미관말직에 머무르고 있었다.⁵³⁾ 이러한 문벌위주 인사는 재능보다는 장기근속을 중심으로 하는 승진현상을 초래하여 여러 가지 모순을 야기시켰다.

서애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재등용에 있어서 門閥과 地閥 등을 따지지 않고 오직 實才만을 구하고자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특히 西北地方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여 지벌을 타파하는데 관심을 보였다.⁵⁴⁾ 능력이 있는 實才를 신

47) 『宣祖實錄』 권81, 29년 10월 乙丑

48) 『西厓集』 啓辭, 措置防守事宜啓, 乙未.

49) 위의 책, 雜著, 北邊獻策議, 癸未.

50) 『宣祖實錄』 권59, 28년 1월 乙未

51) 『西厓集』, 雜著, 書壬辰事始末示兒輩 및 『宣祖實錄』 권25, 24년 9월 戊寅.

52) 『西厓柳成龍行狀』, 『西厓研究』 2.

53) 『宣祖修正實錄』 권15, 14년 5월 癸亥.

54) 『西厓集』, 啓辭, 措置防守事宜啓, 乙未

분에 구애받지 않고 선발한다는 것은 당시 신분제 사회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반대세력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가 영의정으로 정책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변사를 중심으로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간간히 추진된 그의 파격적인 인사는 문벌들의 반대도 심했지만 목적이 주로 전란대비에 있었기 때문에 국왕에 의하여 대부분 수용되었다.⁵⁵⁾

서애가 시행한 실재 등용의 중요한 사례 몇가지를 들자면 먼저 李舜臣과 權慄 그리고 辛忠元을 꼽을 수 있겠다. 먼저 從 6品의 정읍현감인 이순신을 6단계를 뛰어넘어 正 3品 堂上官인 전라좌수사로 超授하게 하였다. 당시 司諫院은 이를 가리켜 관직의 위계질서를 흐트리는 처사라고 국왕에게 취소하도록 간하였으나 그대로 등용되었으며, 권율도 正 5品인 형조 정랑에서 4단계를 뛰어넘어 正 3品인 의주목사로 발탁되었다.⁵⁶⁾ 다음에는 辛忠元을 들 수 있으니 그는 서애가 선발한 實才의 대표적 사례 중의 하나이다. 신충원은 현직에 있는 관리도 아니고 문벌이 있는 가문의 자제도 아니다. 오직 民兵과 僧軍 그리고 公私賤人 등을 모아 군공을 세워 수문장이 되었다. 조령 근처 사람으로 그 일대의 지세와 곡절을 매우 잘 알고 있었으므로 조령 방어에 필수적이었다. 그리하여 서애는 그를 節制使란 고위직책으로 승진시키고 鳥嶺에 둔전을 설치하도록하여 관문의 방비를 철저하게 하였다.⁵⁷⁾

위에서 고찰한 서애의 파격적인 인사는 유능한 실재 등용의 표본적 사례이다. 이같은 인재등용에 당시 반발도 많았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임진왜란 극복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의 강력한 천거가 없었던들 어떻게 이순신이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었으며 권율의 행주대첩이 가능했겠는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유재란때 신충원의 확고한 대비가 없었다면 왜군은 다시 조령을 공격했을 지도 모른다.

서애는 전란을 극복하자면 우선 무엇보다도 유능한 장수의 등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전쟁에서의 승패는 군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장수를 잘 쓰기에 달려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⁵⁸⁾ 그는 인사에 있어서 사사로운 정에 얽혀 서로 자리를 다투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또한 지금 벼슬 자리가 낮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은 파격적으로 그 능력에 맞는 직책을 주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⁵⁹⁾ 아울러 그는 전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명령계통이 복잡하지 않고 유능한 인재에 의하여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바라고 있었음을 다음 사료

55) 『宣祖實錄』 권42, 26년 9월 乙丑

56) 위의 책 권25, 24년 2월 癸未.

57) 『西厓集』, 啓辭, 措置忠州上流口於鳥嶺設開屯田啓 및 위의 책, 권48, 27년 2월 戊辰

58) 『西厓集』, 雜著, 北邊獻策議, 癸未 및 위의 책, 권60, 28년 2월 丙辰.

59) 위의 책, 箚子, 陳時務箚, 壬辰 11月

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다.

오늘의 큰 걱정거리는 지휘자가 너무 많고 명령이 엇갈려 나오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순찰사 2인 가운데 쑥쑥은 관동지방을 전담하고 있으나 별로 보람이 없습니다. [한]이 평소에 그 자를 아는데 통어할 인물이 아니므로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기영을 갈고 명령 계통이 하나가 되게 해야 합니다.⁶⁰⁾

라고 하면서 왕의 즉각적인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란시에 유능한 실재라고 인정하여 선발된 장수라면 바꾸지 말고 오랫동안 그대로 두어야 하며 전투 뿐만 아니라 훈련시에도 그 성과를 비변사는 각 장수에게 책임지우고, 또 예하 부대로 책임지운다면 체통이 선다는 것이다.⁶¹⁾ 그는 신상필벌을 엄격히 시행할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었으므로 각자가 맡은 일에서 공적을 세우면 포상하도록 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자는 처벌하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전란시에 성과를 버리고 도주한 자는 사형에 처하여⁶²⁾ 책임을 완수하게 하였다.

서애가 實才를 登用하고자 노력한 것은 당시 임진왜란이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었겠지만, 각 신분층을 폐쇄적으로 제한하는 봉건적 신분관에 일정한 저항감도 갖고 있다는 그의 정치사상의 한 측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V. 맺 음 말

지금까지 서애 柳成龍의 정치사상을 그의 公論과 朋黨 그리고 人才登用 등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보았다. 이제 이것들을 요약 정리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정치운영상의 公論觀을 보면 그는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정치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보다는 대중의 이익을 앞세우는 공정한 논의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기강이 확립되고 질서가 잡히는데 그러한 공론의 형성에서는 시비를 가리고 반대편의 주장도 타당하다면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권력집행상의 봉당관과 대신관에 있어서 먼저 봉당관을 보기로 하자. 그

60) 위의 책, 書狀, 天兵退駐平壤後條列軍中事宜狀.

61) 위의 책, 書狀, 論李鑑代李頻事 및 啓辭, 令兵曹朝事委鍊兵啓 7月

62) 위의 책, 雜著, 記丁酉事.

는 봉당의 형성이 사람들의 公道政治 추구과정에서 뜻을 같이하는 자들이 학연과 지연 및 혈연에 따라 이를 만들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간을 군자와 소인으로 구분하면서 군자는 동지들과 어떤 문제를 논의할 때 공정하고 시기심도 없다고 했으며, 소인은 사적인 꾀로서 남을 시기하고 黨을 부식하여 사리를 꾀한다고 하였다. 그는 또 공론을 해치는 당파활동에 거부감을 보이는 한편 올바른 정치운영을 위하여 봉당이 바르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다음으로 대신에 관한 그의 생각은 대신이 국가의 정령을 통일하고 국왕을 보좌하기 때문에 그 재질이 우수해야함과 동시에 일반 관인들과는 달리 존경과 권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대신의 직책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지체없이 물러나야 된다는 것이다. 대신이 수행할 일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인재의 선발로 보았는데 그것은 정치의 득실이 결국은 인간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셋째, 국책수행상의 인재등용에 관한 그의 생각을 인재등용기준과 방법 그리고 실재등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우선 인재등용 기준으로 그는 덕망을 제일로 꼽았고 그 다음에는 인간의 재질과 공로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인간의 재질 즉 재능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인재등용 방법상에서 그는 종래의 과거나 문음과 같은 전통적인 것 보다는 천거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제와 문음제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유리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러므로 서애는 부당한 사람이 천거되었을 경우 추천한 사람도 처벌하는데 노력하였다. 끝으로 그의 實才 등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서애는 문벌 중심의 고식적인 인재등용으로는 국가를 구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문벌이나 지벌 등을 따지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는 실재를 선발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그와 같은 사례로는 이순신과 권율 그리고 신충원 등이 있는데 이들은 선발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임란 극복의 중추적 역할을 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서애 柳成龍의 정치사상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의 이익보다는 대중을 먼저 생각하는 공론을 존중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당파도 공론을 해치는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중책을 지닌 대신은 우수한 자질을 지닌 사람이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즉시 물러나야 한다고 보았다. 서애는 국가를 바르게 다스리고 아울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를 과감하게 발탁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종래의 제한된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치사상이 그로 하여금 한국 역사상 미증유의 큰 전란을 극복하는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다.